

통권 제12호 94.1

월간항공우주산업동향 통권제 12호 매월 15일 발행 / 공보처등록 라-6124 1993.7.8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발행

항공우주산업동향

1994.1.

사단
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I. 정부관련시책

■ 관세법 <개정>	1
■ 항공기제조용 시설재 관세감면 대상물품 1차고시	2
■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7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8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정>	9
■ 기술개발촉진법 <개정>	9
■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0
■ 상공부, 항공기등 38개품목 첨단기술도입 자유화 제외	10
■ 상공부, 중형항공기등 5개분야 첨단기술개발과제로 선정	11
■ 상공부, 미국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 적극 추진	12
■ 국방부, 방위산업물자 전문·계열화품목으로 이분화	14
■ 과기처, '94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5
■ 과기처, 과학기술정책 전면 수정·보완	17
■ 공진청, 항공·생명공학등 신산업분야 표준화작업 추진	18
■ 헬기장 설치허가	18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 삼성항공, 국방부와 T-700엔진 사업계약 체결	20
■ 삼성항공, 항공개선학교 개설	20
■ 대우중공업, 사천에 항공기 조립공장 설립	20
■ 대우중공업, 러시아에 항공기술연구센터 설립	21
■ 대우중공업, 인도 회사와 여객기 공동생산 추진	21
■ 대한항공, 한국리튼사 인수 예정	22
■ 대한항공, B777항공기 8대 주문	22
■ 한국로스트왁스, 시화공단에 항공기부품공장 건설	23
■ 금호그룹, 94년 매출목표 3조5천억원	24
■ 금호, 국내 네번째로 슈퍼컴퓨터 도입	24
■ 항공우주연구소 94년 사업계획	25

III. 국내항공우주산업동향

■ 한국산업리스·아세아종금, 국내 최초로 비행기리스 성사	26
■ 한국통신, 해사위성통신 서비스 확대	26
■ 럭키금성상사, 헬기 판매사업 시작	27
■ 대교엔터프라이즈, 프랑스 패러글라이더사 인수	28
■ 국방부, 전자감청·레이더정찰기 도입설 부인	28
■ 코오롱, 미국 아모코사와 폴리설폰류 기술협력	29
■ 일야상사, 토르크 조절나사 국내 생산	29
■ 한국통신, 기내 공중전화서비스 제공	30
■ 우창, 마그네슘합금 제조공장 95년4월 완공	30
■ 한-필리핀 항공회담	31
■ 한-중 항공실무회담 1월17일 북경서 개최	31
■ 교통부, 원주-제주 항공노선 추진	32
■ 대한항공, 봄베이-카이로 취항	32
■ 캄보디아항공 국내항공시장 본격 진출	32
■ 아시아나항공, 서울-홍콩 매일 운항	33
■ 아시아나항공, 서울-목포 운항 재개	33
■ 캐세이퍼시픽, 서울-홍콩간 항공편 늘리기로	34
■ 대한항공, 델타와 영업제휴 계약 체결	34
■ 아시아나항공 취항5년 맞아 사업확대	35
■ 영종도신공항 1단계 공사비중 20% 민자유치	36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 미국, 초고성능 전투기 X-31 시험비행 성공	37
■ 인텔, F-22전투기에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	37
■ 미국 휴즈항공, 98년까지 위성통신사업 진출	38
■ 미국, 중국에 통신위성 3기 판매	38
■ 록히드사, 대만에 항공부품공장 설립	39
■ 에어버스, 중국에 자회사 창설추진	39
■ 영-미 항공기엔진 제작사들 수주경쟁	40
■ 롤스로이스-프랫&휘트니, 항공기 엔진부문 제휴 추진	40
■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차세대 항공기 수요 전망 등 발표	41

■ 일-미-중-유럽, 차세대 단거리 제트기 YS-X 개발	41
■ 브라질, 올해안에 국영기업 36곳 민영화	42
■ 대만-중국, 단거리 여객기 공동생산 가능	43
■ 중국, 보잉사와 항공기부품 합작생산 합의	43
■ 중국 위성발사에 외국관광객 주선	44
■ 말레이시아, 독일과 해상정찰기 합작생산	44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정찰기·헬기 34대 주문	45
■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 93년에 6.2% 성장	45
■ 미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 완화키로	46
■ 독일, 루프트한자 민영화 추진	46
■ 미국 GTE에어폰, 신형 항공기전화 도입 예정	47
■ 중국, 성도공항 외국항공기에 개방	47
■ 대만, 중국과 직항로 개설준비	48
■ 일본 간사이 공항, 사용료 비싸 큰 반발	48
■ 말레이시아, 제2국제공항 건설비 감축	49
■ 인도 가루다항공, 여객기 58대 매각	49

V. 회원사 소개

■ 삼선공업주식회사	50
------------------	----

VI. 참고자료

■ 93년 4/4분기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확인 실적	51
------------------------------------	----

謹 賀 新 年

社團法人 韓國航空宇宙產業振興協會

會 長 李大遠 (三星航空 代表理事)

副會長 孫基洛 (金星精密 代表理事)

石鎮哲 (大宇重工業 代表理事)

趙亮鎬 (大韓航空 代表理事)

黃炳周 (漢拏重工業 代表理事)

柳基喆 (現代精工 代表理事)

常勤副會長 郭柄球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94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와 항공우주산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면을 빌어 지난 한해동안 저희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는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이 21세기를 향해 도약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올해는 우리 모두가 힘찬 첫발을 내디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신경제5개년 계획을 통해 강력한 과학기술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을 항공우주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고 중형항공기와 다목적인공위성등 5개분야를 중점 첨단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이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금지되면 국가간 기술교역이 상품교역에 이은 커다란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민간항공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몇년전부터 계속된 선진국의 가입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임을 농산물 개방을 통해 잘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5년내지 10년을 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하에서 항공우주산업 기술기반을 위한 정부예산이 책정되어 중형항공기와 다목적 실용위성사업의 추진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주어진 짧은 기간동안 최대한의 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장래에 정부가 지원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줄 수 없을때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에는 국내 항공우주업계로서는 처음으로 동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싱가포르에 공동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 회원사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모든 회원사가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를 통해 회원사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외적인 위상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협회가 창립된 이래 내부기반확립에 힘쓰느라 아직 이렇다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회원사에 보답하려 합니다. 아울러 갑술년 한해에도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곽 병 구

I. 정부관련시책

법률안 개정

국회는 지난 회기동안 157개의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데 분야별로는 경제행정규제 완화가 28건, 행정채신 39건, 민생관련 60건, 정치관련 3건, 기타 27건 등으로 행정규제완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관세법 <개정>

- 정부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 收入감소를 고려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축소키로 했다.
- 재무부에 따르면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를 관세법 개정내용에 이미 반영했으며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
 - 오염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관세감면율을 축소를 명시키로 했다.
- 정부가 확정된 94년 관세감면 축소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 외국항행 선박제조용 원료와 항공기제조용 원료는 각각 93년 90%, 100%에서 94년에 50%로 축소되고
 -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수입은 관세 감면율이 93년의 40%에서 94년에는 35%로 축소되며
 - 오염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품의 관세감면율은 80%에서 50%로 각각 대폭 축소된다
- 또한 정부는 95년 이후 이들 3개분야의 감면지원을 매년 5~10%씩 축소할 계획이며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98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 94년 관세감면 운용계획 >

분 야	감 면 율 (%)	
	1993년	1994년
외국항행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	100	50
외국항해선박 제조용 원료품	90	50
철단·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기초설비품	40	35
방위산업원자재	100	100
오염방지·폐기물 재활용	80	50
자동화설비투자	50	50
산업재해·직업병 예방	80	80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80	80
특별법에 의한 감면	50~100	50~100

■ 항공기제조용 시설재 관세감면 대상물품 1차고시

- 재무부는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기존의 56개품목(우주부문은 연구개발용품으로 분류되어 제외)에서 34개품목으로 축소, 1차고시 하였다(재무부령 94.1.7)
- 상공부는 93년에 재무부에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112개 품목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 94년3월경 재무부령으로 추가 공포될 예정이다

구 분	기존고시	1차건의	2차건의	중간고시
부 서	상공부	협회→상공부	상공부→재무부	재무부
일 자	93년	93년9월	93년11월	94년 1월
품 목 수	56	129	112	34

항공기제조용 시설재 관세감면대상물품(재무부령1959(94.1.7))

일련 번호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1	8425	42,49	잭(Jack)	항공기제조용의 것에 한함.
2	8455 8479	89	롤포밍기	항공기부분품 제조용으로서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함
3	8456 8472 8479	10 90 81, 89	마 킹 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레이저가공방식의 것으로 연속정격출력 50와트(W)초과의 것 2. 에칭(Etching) 방식의 것 3. 잉크젯프린트(Ink Jet Print) 방식의 것 4. 커팅(Cutting)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외경 0.1인치(Inch)이하의 케이블에 대한 작업이 가능한 것 5. 스템마킹(Sleeve Marking)용의 것으로 기억용량 5천캐릭터(Character)이상의 것
4	8456 8461 8465	90 50, 90 90	절 단 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플라즈마(plasma) 절단방식의 것 2. 갠트리(Gantry)형의 것 3. 테이블 이송절단방식의 것으로서 최대 절단두께 3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5	8457	10	머시닝센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주축회전후 1만2천 알피엠(RPM) 초과 2. 5축이상 동시제어가 가능한 것
6	8459	21, 29	드릴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래디알(Radial)(암(Arm)의 길이 2천500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건드릴링(Gun Drilling) (가공길이 1천500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2. 로봇트(Robot)형의 것

일련 번호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7	8459	40	보오링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수치제어방식의 것(수평형은 주축직경 130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2. 지그보오링기(Jig Boring M/C)
8	8459	51, 59 61, 69	밀 링 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3축이상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다두형의 것 2. 5축 제어가 가능한 것 3. 프로파일(Profile)형의 것
9	8459	70	랩 핑 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단축으로서 스윙(Swing) 450밀리미터(mm)를 초과 또는 가공능력이 M30을 초과하는것 2. 다축(축수 55축)과 테이블 크기 700밀리미터(mm) × 850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3. 수치제어방식의 것
10	8460	40	랩 핑 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수치제어방식의 것 2. 크랭크축(Crank Shaft)형 · 캠축(Cam Shaft) 형 또는 기어(Gear)형의 것
11	8460	21, 29 90	그라인딩마스터	그라인딩(Grinding) · 디버링(Deburring) 또는 폴리싱(Polishing)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것에 한함.
12	8460	21, 29 90	피니싱기	복합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주축회전수 500알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함
13	8462	10, 91 90	프 레 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터렛(Turret)형의 것 2. 테이블크기 가로방향으로 900밀리미터(mm) 를 초과하고 세로방향으로 3천500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것
14	8462	21	굴 곡 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에 한함.(단 유압식은 가압력이 650톤(Ton)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일련 번호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15	8462	21, 29	굽 힘 기 펼 침 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외경 5인치(Inch)이상의 튜브에 대한 벤딩(Bending)이 가능한 것 2. 폭 750밀리미터(mm)이상이고, 두께 1.5밀리미터(mm)이상의 것에 대한 작업이 가능한 것
16	8462	99	라 우 터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주축회전수 1만2천 알피엠(RPM)이상의 것에 한함
17	8471 8504	99 50	디지타이저	자동제도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작업범위가 300밀리미터(mm)×300밀리미터(mm)이상의 것 2. 정밀도 ±0.03인치(Inch)이상의 것
18	8479	89	로 보 트	항공기 및 항공기부분품 제조용의 것으로서 7축 다관절이상의 것에 한함
19	8480	79	본딩핵스튜어	항공기 및 항공기부분품 제조용의 것으로서 복합소재 가공용의 것에 한함
20	8515	29	점용접기	다관절 7축이상 로봇트(Robot) 형의 것에 한함
21	9011 9012	80 10	현 미 경	금속재료 또는 복합소재 미세조직 관찰용의 것으로서 배율 5만배 이상의 것에 한함
22	9014	10	자이로스코프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 제조용의 것에 한함
23	9017	10, 20	자동제도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고주파 설계용의 것으로서 통신기기설계 및 해석용의 것 2. 레이저 현상방식에 의한 필름플로팅(Film Plotting)의 것 3. 칼라그래픽(Color Graphic)이 가능한 것으로서 인치(Inch)당 150도트(Dot)이상의 것

일련 번호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24	9024	10	장력측정기	장력 100파운드(LBS) 측정이 가능하고 케 이블 굵기 1/16인치(Inch) 이상의 것에 대 한 측정이 가능한 것에 한함
25	9027 9031	80 80	열분석시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금속재료 분석용으로 감지능력 5마이크 로그램(μg)이상의 것 2. 최고온도 1천500도($^{\circ}\text{C}$)이상의 것
26	9027 9030	30, 80 39,81,89	분광분석기	주파수범위가 10기가헤르쯔(GHZ)이상의 것 에 한함
27	9029 9031	20 80	가속도계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 제조용의 것에 한함
28	9030	81, 89	마이크로프로세스 개발시험검사장비	기억용량이 60킬로바이트(KB)이상의 것에 한함
29	9030 9031	89 90	와이어하니스 테스터기	최대전압 150볼트(V)이상이고, 최대전류 400메가암페어(MA)이상의 것에 한함
30	9031	80	비파괴검사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초음파 시험기중 씨-스캔(C-SCAN)형 또는 두께측정기 2. 엑스선 투과검사기 3. 와전류 탐상시험기 4. 자분 탐상기
31	9031	80	콘트롤마스타게이지	항공기치구 마스타콘트롤(Master Control) 용의 것에 한함
32	9031	80	내시경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 제조용의 것에 한함
33	9031	80	회로망 분석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최대 주파수 15GHZ 이상의 것 2. 임피던스(Impedance) 또는 게인페이즈 (Gain Phase)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서 주 파수 30메가헤르쯔(MHZ)이상의 것

일련 번호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34	9031	80	레이저측정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벤딩(Bending) 튜브 측정용의 것으로서 외경 4인치(Inch)이하의 튜브측정이 가능 한 것 2. 레이저빔(Laser Beam) 직경이 10밀리미 터(mm)이하의 것으로서 직진도 및 선형도 측정용의 것

■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 주요골자 □

-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중소기업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기업이 연구원의 인건비, 종업원의 기술훈련비등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개선.
- 이에따라 종전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상지출액에 대해 5%(중소기업 10%)를 세액 공제 해주던 것을 폐지하고 30%를 공제 받던 기술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
-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률을 30%(국산기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50%)로 통일함.
- 장래의 자산취득 또는 비용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익금환입에 있어서는 손비로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 부터 매년 균등액을 3년에 걸쳐 과세소득에 산입하도록 통일.
- 지방이나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기간은 95년말 까지 2년간 연장.
- 무주택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되 근로자의 거주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주택저축 폐지.

- 농어촌진흥공사를 비영리법인 간주규정에서 제외.
- 기술개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법인세법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개발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개정이유 □

- 예외적인 재정운용형식인 기금이 과도하게 설치·운용됨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금이 부담하는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결방법을 규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
- 경제기획원장관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 제출시한을 현행 9월2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하여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등 기금운용계획 확정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 종전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는 각각의 국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왔고, 차입금의 한도액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다른 국채 및 차입금과 함께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회의결절차가 간소화 되도록 함(법 제7조제1항)
- 현재 시행중인 기금설치근거법률은 과학기술진흥법등 모두 112개가 있음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정>

□ 제정이유 □

-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을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체제 중심으로 개혁하여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위험부담금의 감소와 성공가능성의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국내의 제한된 연구개발비, 인력, 정보,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키 위함

□ 주요골자 □

- 협동체제를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법 제4조, 제5조)
-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의 상호과견 및 겸직을 허용하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며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연구개발 시설 또는 기차재 등을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제8조)
- 기업, 연구소 및 대학의 협동연구·협동교육체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소가 기업위탁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법 제9조, 제10조)
- 국가는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 기술개발촉진법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강제적립근거를 삭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를 發止하여 이를 자율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기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시켜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술개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94년부터는 50%로 대폭 높였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법인세법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개발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소음피해(예상)지역 내 시설물 설치제한 및 용도제한규정으로 인한 해당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93.12.11)

□ 주요골자 □

- 제2종 및 제3종구역중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도시계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주택지, 시가지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제한 및 용도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소음지역 해당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소음지역 지정·고시 당시 택지개발 관련법률에 의거 주택지조성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경우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명시(부칙신설)

■ 상공부, 항공기등 38개 품목 첨단기술도입 자유화 제외

- 정부는 94년부터 기술도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자동차, 항공기, LCD(액정소자), 발전설비 등 경제전체에 영향이 큰 첨단 고도기술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를 받아 도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 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로열티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 정부에 기술도입을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품목을 현재의 1백6개에서 1백18개로 늘리기로 했다.
- 상공자원부는 12월18일 로열티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던 기술도입 신고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대상을 품목별로 지정키로 함에따라 기술개발이 초기 단계이거나 자본집약도가 높아 외국의 첨단기술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고도기술 부문 38개 품목을 선정, 이들 품목에 대해 정부가 계속 기술도입의 허가권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재무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 상공부가 기술도입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선정한 품목은 자동차, 항공기,

LCD, 발전설비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고속전철, 인공위성, 산업용로봇, 기억소자, 석유화학, 전자교환기, 고속엘리베이터, 중전기(3백45kV 이상), 이동통신, 위성통신기기, 광통신장치, 고성능 전지, 수치제어 금속공작기계, 자기부상열차, 제지설비, 컴퓨터(중형급 이상), 디지털방식 음향기기, 고성능 전지 등이다

■ 상공부, 중형항공기등 5개분야 첨단기술개발과제로 선정

- 상공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강화를 겨냥해 반도체와 액정소자(LCD), 중형항공기와 다목적위성, 차세대공작기계등 3개 산업5개분야를 중점 첨단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해 금년중 1천억원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 1월10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산업별 기술개발전략"을 확정, UR에서 허용되는 산업연구 및 기초개발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수요와 직결되는 업종별 기술경쟁력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특히 금년을 항공우주산업 육성 원년으로 지정, 중형항공기와 지구저궤도용 다목적위성을 개발해 내수는 물론 수출산업으로 조기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금년중 각각 1백40억원과 65억원의 기본설계및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 정부가 항공기부문은 70억원, 위성은 55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 반도체산업부문에선 개발과제를 256메가D램급 차세대반도체개발기술과 액정소자의 두가지로 구분, 차세대반도체의 경우 금년 정부예산에서 1백92억원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2백77억원을 끌어들이는등 97년까지 모두 1천9백5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LCD는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선정, 97년까지 4천3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되 금년중 정부와 민간이 각각 1백억원씩 모두 2백억원가량을 투자할 방침이다.
- 공작기계산업은 고도처리기술과 초정밀가공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공작기계를 개발키로 하고 시스템통합운영기술등 24개과제를 새로 추가하는등 모두 45개부문별 과제를 선정, 금년 정부자금 94억원등 모두 1백82억4천5백만원을 들이기로 했다.

■ 상공부, 미국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 적극 추진

- 정부는 선진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독일·중국과의 산업기술 협력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또 미국에 일류화 상품위주의 판매사절단을 파견하고 한국상품 상설전시장을 추가로 늘리는등 대미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현재22%에 머물고 있는 대미수출 비중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상공자원부가 10일 마련한 '금년 통상진흥시책'에 따르면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해 민간차원의 첨단분야 협력사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한미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상반기중 발족시켜 반도체.공작기계.항공기.통신기기 등 7개 협의회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 상공부는 올해 30억원으로 처음 책정된 한미산업기술협력기금을 오는 97년까지 1백60억원 규모로 늘려 양국간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과 업계간의 공동기술 개발과 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산업협력공동위원회 설치와 산업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자동차, TDX(전전자교환기), 고화질TV(HDTV), 항공기등 주요업종별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미 산업협력 □

○ 경 과

- 93. 11. 20 : 한.미 통상장관 회의
(94년 상반기중 한.미 산업기술 협력 위원회 설치, 운영 합의)
- 93. 12. 2 : 94년 사업 계획 작성을 위한 항공기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 93. 12. 21 : 한.미 산업협력 관련 실무 협의
(양국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자문회의 구성 합의)
- 94. 1. 6 : 한.미 산업협력 관련 회의 개최 (상공자원부 관련 부서간)

○ 산업.상업협력 자문회의

대상업종 : 항공, 환경, 통신기기, 의료기기, 반도체, 컴퓨터, 기계공구, 자동차, 발전설비 (총 9개 분야)

- 구 성 : 상공부 차관보 또는 동인 지명자(기본적으로 Observer 역할)와 Subgroup의 대표
- 운 영 : - 자문회의는 각 Subgroup 작업 결과를 양국 상공부 장관 및 DEC(한.미 경제협력 대화 협의체)에 문서로 보고하고
- 양국 상공부는 동 자문 그룹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한-불 산업협력 □

○ 경 과

93. 9. 14 :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하여 정부 및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산업협력 위원회 설립 제안

93. 12. 26 : 제1차 한.불 산업협력 위원회 개최

○ 제1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결과

- 우선협력 분야 선정 합의
자동차, 항공우주, 전기통신, 환경, 에너지, 전자, 수송(총 7개 분야)
- 민관전문가로 Round Table 구성합의.
94년 전자.전기통신 및 항공우주 등 2개 분야 Round Table 구성.
- 제2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는 94년 4/4분기 파리에서 개최
- 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프랑스APRODI 간 협력강화)
정보통신망 구축, 프랑스 전문가초청 지도사업 활성화, 상주협력관 파견
- 중소기업 기술인력 연수.(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프랑스APRODI 간)
연수 확대에 공감하나 연수대상, 언어, 재정부담 등 문제해결을 위해 94.3월을 시한으로 양측이 기본 계획을 작성 완료키로 합의
- 산업기술정보 교류 협력 (산업기술정보원과 프랑스 관련기관간)
산업기술정보교류협력 구체적 사항은 프랑스 측이 세밀히 검토 추진
- 테크노 마켓 개설 (생산기술연구원과 프랑스 국립기술실용화기구)
기술수요 조사 구체적 추진 방안 강구
- 투자 증진(94년중 프랑스 투자사절단의 방한 모색)

■ 국방부, 방위산업물자 전문·계열화품목으로 이분화

- 앞으로 항공·화력·탄약·함정 등 방위산업 물자는 전문화 및 계열화품목으로 이분화되는데, 전문화품목은 1~2개 생산업체(조립업체)가 전담하고 계열화품목은 1개업체(협력업체)만이 생산하게 된다.
- 국방부는 상공자원부와의 최종협의를 거친후 대통령재가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 개선안」을 12월15일 최종확정, 이날이후 착수하는 사업부터 시행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와 상공자원부 공동훈령으로 제정된 이 개선안은 우선 기술개발촉진과 방산업체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무기체계별 기술특성에 따라 현재 지정된 방산물자를 전문화 및 계열화품목으로 분류, 이에 적합한 생산업체를 선정, 육성토록 했다.
- 전문화품목(완성장비)은 무기체계 분류기준, 소요기술 및 전용설비의 유사성에 따라 종전 33개에서 소구경, 중구경, 대구경 등 47개로 세분하고 47개 분야별로 1개 또는 2개 업체를 선정, 기술개발 촉진과 국산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 계열화품목은 전문화품목의 기능품목으로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보호육성이 필요한 구성품, 부품, 소부재 중에서 포신, 사통장치대, 안정화장치 등 2백43개(종전 85개)로 대폭 늘려 각 품목마다 1개업체만을 선정, 책임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 이같은 전문계열화 원칙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결과 47개 전문화품목중 무선통신장비 등 41개 품목은 업체가 선정됐으나 전파 항법장비 등 6개 품목은 아직 업체 선정을 하지 못했으며 계열화품목의 경우 엔진, 포신 등 1백16개 품목은 업체가 결정된 반면 적외선검출기(유도장비) 등 1백27개 품목은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
- 국방부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품목은 대부분 해외도입종인 품목으로서 추후 획득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키로 했으며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전문계열화 품목분류 및 전문업체 선정이 요구될 경우 상공자원부와 협의, 보완할 방침이다.

■ 과기처, '94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선도기술 개발사업 □

- 사업내용 : 93년도 계속추진사업(신의약, 신농약 기술개발 등 10개사업)
- 접수기간 : 94년 상반기에 상공자원부, 환경처등 관계부처와 공동공고 예정

□ 항공우주사업 □

- 사업내용 :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복합재항공기개발 등
- 접수기간 : 94년 상반기에 별도공고 예정

□ 국책연구개발사업 □

- 사업내용 : 93년도 계속추진사업
 - CFC대체기술 개발(90~94),
 - 산업용 소형가스터빈엔진 개발(91~95)
- 신청자격 : 해당 계속사업의 주관연구기관
- 접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 접수기간 : 93년 사업종료 2개월전까지
- 사업내용 : 94년도 신규추진사업
 - 핵심산업기술, 미래복합기술, 접용기술, 공공복지기술, 고속철도기술, 소프트웨어기술 등의 분야
 - 2단형중형과학로켓, 고온초전도체기술 개발등
-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대상기관
- 접수기간 : 94년 상반기에 별도공고 예정

□ 출연기관 연구개발사업 □

- 사업내용 : 연구기관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사업
 - 출연(연) 특성화계획에 따른 주기능 중심으로 지원
- 신청자격 : 과기처산하 출연연구기관
(단 원자력분야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 추진)
- 접수처 :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연구기획관리단)
- 접수기간 : 94년1월~3월말

□ 연구기획 평가사업 □

- 사업내용 : 연구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업
-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대상기관
- 접수처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 접수기간 : 94년1월~12월
- 사업내용 : 산학연협동연구회 사업
- 접수기간 : 1차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94년 하반기에 별도공고 예정

□ 국제공동연구사업 □

- 사업내용 : 외국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 접수기간 : 94년상반기에 별도공고 예정

□ 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사업 □

- 사업내용 : 1차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94년 상반기에 별도공고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 신청절차, 신청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처 훈령 제373호, 93.8.5)을 참고하고 신청서는 각 과제별로 13부를 제출
- 문의처 : 사업총괄(과학기술처 연구기획과 ☎ 500-3276)
 -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출연기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968-4292)
 - 연구기획평가사업(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 500-3273)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할 예정임

(문의처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 782-7600)

■ 과기처, 과학기술정책 전면 수정·보완

- 국제화, 개방화, 일류화에 맞춰 지난 86년에 수립한 「2000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이 전면 수정, 보완된다
-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은 1월1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등에 대처하면서 국제화, 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0년을 내다보는 과학기술정책 발전방향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혀 기존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시사했다.
- 김장관은 이를 위해 금년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그 구체적인 예로
 - 외국 과학기술자를 과감히 유치해 출연연구소장까지도 맡을 수 있게 하는 등 국내연구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제합동연구를 확대하며
 - 국내연구소의 해외설치, 외국연구소와 기업의 매입 등을 확대해 해외진출을 크게 늘리는 한편
 - 출연연구소 및 우수연구센터의 연구개발비중 10%를 의무적으로 국제공동연구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금년에는 우리의 과학기술능력을 98년까지 세계9위, 21세기초 선진7개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기본목표하에
 - 신기능생물, 신품종, 다목적항공기 등 각분야에 걸친 첨단,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 기초과학육성과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확대
 -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 원자력기술자립과 안전감시활동강화 등 5대중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공진청, 항공·생명공학등 신산업분야 표준화작업 추진

-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분야의 표준화 작업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진청은 최근 "산업표준 선진화5개년 계획안"을 확정, 지금까지 산업표준이 되어 있지 않은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 물유, 정보, 환경 등 신산업분야를 대상으로 5천여개의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보완키로 했다.
- 이를위해 공진청은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국가규격통일, 민간표준의 활성화 등 산업표준 기능을 6개 부문별로 나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공진청은 특히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 5백51개, 정부출연연구소 20개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산업표준 연구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 또 현재 1억5천만원에 불과한 표준화제정기금을 3백억원으로 확충해 산업표준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표준제정단체를 현재 39개에서 2백여개 수준으로 늘려 업종별 협회등 민간단체들이 산업표준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그동안 국내 산업표준은 선진국의 모방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산업표준 선진화5개년 계획이 수립돼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헬기장 설치허가

□ 삼성전관(주) 가천헬기장 □

- 비행장의 명칭 : 삼성전관(주) 가천헬기장
- 위 치 : 울산군 삼남면 가천리 818
- 표 고 : 해발 161.0m
- 표 점 : 북위 37° - 30' - 38.02"
동경 129° - 05' - 47.91"
- 설치목적 : 수출산업을 위한 당사 내·외방문객의 편의제공과 긴급업무 수행
- 비행장의 종류 : 육상헬리포트
- 비행장의 등급 : D급 (활주로 25m × 25m)

□ (주)호텔신라 제주헬기장 □

- 비행장의 명칭 : (주)호텔신라 제주헬기장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3039-3 (호텔내)
- 표 고 : 해발 69.0m
- 표 점 : 북위 33° - 14' - 54.26"
동경 126° - 24' - 41.56"
- 설치목적 : 호텔을 방문하는 귀빈 및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긴급업무 수행
- 비행장의 종류 : 육상헬리포트
- 비행장의 등급 : D급 (활주로 25m × 25m)

□ 삼성전자(주) 온양 헬리포트 □

- 비행장의 명칭 : 삼성전자(주) 온양 육상헬리포트
- 위 치 : 충남 아산군 배방면 북수리 산74
- 표 고 : 해발 55.4m
- 표 점 : 북위 36° - 45' - 55.69"
동경 127° - 03' - 57.30"
- 설치목적 : 공장을 방문하는 귀빈 및 당사 임직원들의 교통편의 제공
- 비행장의 종류 : 육상헬리포트
- 비행장의 등급 : D급 (활주로 25m × 25m)

□ 호남정유(주) 여천공장 육상헬기장 휴지 □

- 비행장의 명칭 : 호남정유(주) 여천공장 헬리포트
- 위 치 : 전남 여천시 월내동 1056-18
- 휴지기간 : 93. 12. 30 ~ 94. 12. 30 (12개월간)
- 휴지사유 : 공장제품 출하부두 증설을 위한 작업장 편입

II. 협회 및 회원사 동정

■ 삼성항공, 국방부와 T-700엔진 사업계약 체결

- 삼성항공은 12월30일 국방부와 UH-60헬기 엔진(T-700)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 삼성항공은 95년부터 99년까지 국방부에 UH-60블랙호크헬기에 장착될 T700엔진 1백20여대를 9백70억원에 공급키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12월14일 UH-60헬기 엔진사업 2차계약에서 엔진생산업체를 대한항공에서 삼성항공으로 바꾼것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이날 삼성항공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 삼성항공, 항공개선학교 개설

- 삼성항공은 12월6일 전사적인 합리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항공개선학교를 개설, 95년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삼성항공은 사원들의 합리화의식을 높이고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공장합리화 이론교육과 선진업체견학, 현장실습 등의 항공개선학교를 열기로 했다.
- 항공개선학교는 1, 2, 3공장 대리와 주임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일정으로 19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우중공업, 사천에 항공기 조립공장 설립

- 대우중공업이 경남 사천에 항공기최종조립공장을 짓는다.
- 대우중공업은 11일 경남 사천군 사천읍 용당리 1백32번지 일대 3만여평부지에 초등훈련기(KTX-1), 중형항공기등을 조립할 수 있는 행거를 94년6월 착공하여 4백45억원을 투자, 너비1백30m 길이1백80m 높이15m의 무주공간 항공기조립장(행거)을 95년7월까지 완공키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천군청에 제출했다.
- 대우중공업은 또 97년6월부터 1년간 너비65m 길이80m규모의 무주공간 제2항공기최종조립장을 짓고 98년7월부터 99년7월까지 너비65m 길이80m의 제3조립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대우중공업, 러시아에 항공기술연구센터 설립

- 대우중공업이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의 츠프스키 지역에 항공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한다.
- 1월7일 대우중공업은 러시아와 항공분야의 기술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현지실사와 준비작업을 거쳤으며 오는 3월 30일 항공기술 연구센터의 개관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 대우중공업은 금년 3월부터 러시아인 연구위원 50명과 자사파견인원 10여명, 현지채용 계약연구원 3백여명을 갖춰 항공기술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연말까지 전체 연구원을 4백여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동사는 항공기술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가 받아 모스크바 인근지역인 츠프스키에 4층 빌딩과 7백여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고 러시아 차기연구소의 항공기 제작 및 설계전문가인 슈바이프박사를 항공기술연구센터의 초대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 대우중공업은 모스크바 항공기술연구센터를 통해 러시아의 MI-8기와 MI-17기 등 28인승급 수송용 헬기 2종을 국내 실정에 맞게 형상과 기능을 개량하고 차세대 수송헬기와 5톤급 다목적 헬기의 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 대우중공업, 인도 회사와 여객기 공동생산 추진

- 대우중공업은 인도의 힌두스탄항공기제작회사(HAL)와 중형민간여객기의 공동제작을 검토키로 하는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인도 국방부 관계자가 12월16일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이날 의회 보고에서 두 회사가 1백-1백30석의 중형 제트여객기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다른 회사가 참여할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HAL은 최근 유럽의 에어버스 컨소시엄으로부터 A-310의 앞문을 제작키로 하는 수백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 대한항공, 한국리튼사 인수 예정

- 대한항공이 항공전자분야와 가스터빈엔진 제작업에 신규 진출한다.
- 대한항공이 최근 확정된 94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항공기 종합 제작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항공기 첨단전자장비분야인 INS(관성항법장비)제작 및 정비업에 나서는 한편 항공기 엔진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터빈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국내 INS전문업체인 한국리튼사를 인수해 항공전자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에 나설 방침이며 한국리튼사로부터 인수와 관련한 가격제안서 등을 받아놓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논의중인 협상가격은 약2천5백만달러인데 대한항공이 한국리튼사의 부채를 안은 조건으로 인수금액은 5백만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대한항공은 또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빌딩용 가스터빈을 우선 개발해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관련기술을 발전시켜 항공기 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대한항공, B777항공기 8대 주문

- 미 보잉사는 12월16일 대한항공이 B777항공기 8대를 주문했으며 트랜스브라질도 같은 기종3대를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 대한항공은 신형 B777기를 주문한 16번째 항공사로 비행기 인도는 97년부터 2000천년까지 인도될 계획이다
- B777기는 보잉사가 개발한 차세대 항공기로 MD-11등 유사기종보다 20%이상 연료가 적게들며 280~400석의 좌석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147대의 확정주문과 108대의 옵션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대한항공은 금년중 B747-400 등 9대의 신형기 구입에 5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향후 B777, A330 등 신형기종을 도입하는 대신 DC-10, B-727기종 노후기종은 점차 매각할 계획이다
- 한편 지금까지 외국은행으로부터 항공기 구매자금을 차입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올해(1월, 2월, 7월)각각 도입키로한 B747-400항공기 구매자금 3억9천만달러를 미국채권시장에서 투자가들로부터 직접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 조양호 대한항공사장은 이를 위해 워싱턴에서 미수출입은행 브로디총재와 차입 기간 12년,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 0.0625%를 추가한 조건으로 美 수출입은행 보증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대한항공은 이번 美 채권시장 자금직접조달로 은행차입에 비해 약 2천만달러를 절감했으며 앞으로 보잉, 맥도넬더글러스사등에서 항공기를 도입할때 같은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한국로스트왁스, 시화공단에 항공기부품공장 건설

- 정밀주조업체인 한국로스트왁스공업이 시화공단에 항공기엔진 주조부품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
- 12월16일 한국로스트왁스 관계자는 94년1월부터 60억원을 들여 시화공단 3천평에 항공기 주조부품공장 건설에 착수, 95년부터 에어 실(Air Seal)등에 대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공장은 차세대전투기사업(KFP)에 따른 F16機 엔진 주조부품 생산은 물론 민간항공기, 가스터빈, 선박엔진용 주조부품을 만들기 위해 진공용해로 2대를 비롯한 금속조직테스트기등 30억원 어치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된다.
- 이에따라 이 회사는 현 반월공장에서는 일반 산업기계 주조부품만을 생산한다는 계획아래 이 공장에 있는 항공기 엔진 주조부품 생산설비도 95년까지 시화공장으로 옮길 방침이다.
- 한국로스트왁스는 92년3월에 항공기 제트엔진 주조부품인 에어실을 국산화하여 정부로부터 차세대전투기사업 정밀주조업체로 지정 받았다.
- 에어실은 엔진내부에 흡입·폭발된 고압및 고온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봉인, 엔진의 추진력을 높이는 부품이다.

■ 금호그룹, 94년 매출목표 3조5천억원

- 금호그룹은 11일 금년 매출 3조5천억원, 투자 9천2백억원의 경영목표를 발표했다.
- 금호는 최근 94년 사업계획 보고회와 사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금년 매출을 전년도 3조원에 비해 5천억원(16.7%) 증가한 3조5천억원(금호 : 1조1천억원, 아시아나항공 : 7천억원)으로 확정했다.
-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6천3백억원, 연구개발비 6백억원등 모두 6천9백억원 수준에서 금년은 33.3%를 늘린 9천2백억원으로 매출액의 26.3%에 달하는 액수를 투입,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계열사별 설비투자 규모는 (주)금호가 하남과 곡성 타이어공장 증설 및 중국과 베트남에 타이어공장 건설, 서울 터미널백화점 건설에 1천5백억원을 투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및 항공기자재 도입에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금호그룹은 연구개발분야에서 (주)금호가 3백50억원을 투입해 크레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금호화학은 대덕에 준공하는 화학연구소에서 생명공학, 고분자 세라믹등 신소재와 정밀화학분야 연구에 3백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 이와함께 광주과학기술원내에 금호생명공학연구소와 금호정보통신연구소를 건립한 후 금호 기술진과 과기원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50여억원을 투입하고 점차 연구소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금호, 국내 네번째로 슈퍼컴퓨터 도입

- 금호그룹은 연내에 슈퍼컴퓨터를 도입, 그룹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컴퓨터에 의한 연구개발시대를 열기로 했다.
- 금호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기아, 삼성, 현대자동차에 이어 4번째로 (주)금호의 타이어연구소가 중심이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입기종 결정을 위해 현재 크레이사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크레이슈퍼컴퓨터가 도입될 경우 금호는 타이어연구개발과 물류체계확립, 아시아나항공의 예약시스템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연구소 94년 사업계획

-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올해를 항공우주기술발전의 원년으로 정하고 국가적 대형연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항공부문 □
 - 우선 항공기술분야에서는 50~100인승 쌍발터보프롭 중형항공기, 8인승 쌍발복합재항공기, 소형 가스터빈엔진성능평가기술 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 95년 개발이 완료될 쌍발 복합재항공기 개발사업은 오는 95년 8월 광복50주년에 시험비행을 가질 계획인데 이 비행기는 전장 12m, 최대시속 4백50km의 비즈니스 및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소형가스터빈엔진개발사업은 1.5메가와트급 가스터빈엔진의 국산화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 우주부문 □
 - 우주기술분야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및 중형과학로켓개발, 무궁화호위성 개발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다목적 실용위성개발사업은 올해 연구개발에 착수, 98년에 국내 최초로 과학탐사위성을 발사한다는 목표인데 이 위성은 과학실험 및 탐사, 해양탐사, 환경관측, 조난구조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 위성사업과 관련한 핵심시설인 위성체 조립, 시험동 건설사업을 금년중에 착수, 9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 중형 과학로켓개발사업은 93년 개발에 성공한 1단형 과학관측로켓의 후속사업으로 전장10.3m, 직경 42cm, 무게 2t의 2단형로켓이며 200km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3년간 50억원을 투입해 이미 마련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금년에 구조체의 기본 및 세부설계 등을 수행하고 96년에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 95년 발사될 무궁화호 통신 위성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버스시스템의 국내개발 능력과 핵심부품개발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올해 종료될 이 사업은 시스템엔지니어링능력확보로 제2세대 통신위성 독자설계와 위성체 핵심부품의 국내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Ⅲ. 국내항공우주산업동향

■ 한국산업리스·아세아종금, 국내 최초로 비행기리스 성사

- 산업리스와 아세아종금이 국내 리스업계(해외현지법인 제외)에서는 처음으로 비행기리스를 성사시켰다.
- 한국산업리스는 12월21일 아시아나항공이 보잉사로부터 94년중 도입예정인 B737-400에 대해 총3천6백만달러어치를 아세아종금과 공동으로 리스키로 하고 이날 계약조인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 이번 비행기리스에는 산업리스가 2천3백만달러, 아세아종금이 1천3백만달러를 각각 부담하는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리는 리보에 1.3%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금까지 비행기리스는 국내 리스사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수차례 이루어진바 있으나 국내에서 비행기리스가 행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항공기의 경우 거래규모가 크고 사용기간이 길어서 리스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인데 그간 국내 항공사들은 자금력이 풍부한 국내외 대형은행이나 외국의 항공기 전문리스사와 계약을 맺어왔으나 그러나 94년1월부터 국내 리스사에도 항공기에 대한 외화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이번에 국내 최초로 항공기 리스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 한국통신, 해사위성통신 서비스 확대

- 그동안 대형선박에만 이용가능했던 해사위성통신 서비스가 소형선박과 육상의 이동차량에도 가능케 됐다.
- 한국통신은 지난 91년부터 애널로그방식의 인말샤프트-A 서비스를 해온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디지털 인말샤프트-C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본격 제공키로 했다.
- 인말샤프트-C 데이터서비스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통신기술인 축적전송방식의 저속메시지통신으로 텔렉스 및 데이터통신과 조난통신을 소형 선박과 육상의 이동차량에서도 할 수 있으며 특히 항해중인 선박의 위치 보고와 선단관리 등에

적합한 서비스이다.

- 이번에 한국통신이 인말샤프트-C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통신 등 국제 해사 위성통신 서비스는 물론 컴퓨터에 의해 국제간의 선박운송에 정확하고 신속한 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말샤프트-A 서비스는 애널로그방식으로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및 조난통신이 가능하나 안테나 및 단말기의 중량이 크고 고가이므로 주로 대형선박에만 이용해왔다.
- 지난 82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인말샤프트 통신서비스는 운항중인 선박과 항공기, 육상의 이동차량과 육지의 가입자간 공중통신 및 조난통신을 제공하는 이동체통신으로 인말샤프트-A, C에 이어 B, M서비스 등 차량과 휴대용단말기, 항공기 등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 렉키금성상사, 헬기 판매사업 시작

- 렉키금성상사는 러시아산 헬기 도입을 계기로 헬기 판매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하고 러시아측과 한국 및 제3국에 대한 독점판매 및 A/S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도 체결했다.
- 렉키는 최근 러시아의 쿠메르타우 에어크라프트사와 KA32T기종 도입계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이 기종 헬기 2대가 12월17일 김포공항을 통해 반입되었다.
- 이 기종은 엔진출력 4천4백마력의 18인승 헬기로 프로펠러가 상하 2중으로 장착되어 안정성이 높고 수직상승력이 큰데 비해 회전반경이 짧아 기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 도입 헬기는 조달청을 거쳐 산림청에 공급되어 산불진화, 방충용 약품살포, 인명구조, 중장비 수송 등에 사용된다.

■ 대교엔터프라이즈, 프랑스 패러글라이더사 인수

- 항공스포츠용품업체인 대교엔터프라이즈가 프랑스의 패러글라이더업체인 IPB사를 인수하고 이부문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 동사는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을 강화하기위해 최근 프랑스 북부도시 에네시시에 있는 패러글라이더업체를 인수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 이번에 인수한 프랑스 현지공장은 연간 1천여대의 패러글라이더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현지공장의 확보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첨단제품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생산량의 99%를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대교는 해외 생산기지를 마련함에 따라 수출규모가 금년의 7백50만달러에서 내년에는 1천2백만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방부, 전자감청·레이더정찰기 도입설 부인

- 한국이 8대의 전자탐지및 레이더 정보수집용 정찰기를 갖춘, 약 10억달러 상당의 항공모함을 특별주문중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등 4개국 5개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항모는 한국이 내년 여름까지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주간지 디펜스뉴스가 1월7일 보도했다.
- 미국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될 이 항모는 주한미군의 작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국측 회사가 구입을 말아야 한다고 미정부 관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 이와관련 한국해군관계자는 1월8일 "현재 우리의 국방예산 규모상 전력증강 계속 사업 이외에 다른 고가장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근거없는 무기도입업계의 루머"라고 부인했다.

■ 코오롱, 미국 아모코사와 폴리설펜류 기술협력

- (주)코오롱은 자동차 우주항공 반도체분야등에서 수요가 늘고있는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설펜(Polyulfone)류의 국내독점수입판매 및 향후생산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1월6일 미국 아모코사와 맺고 관련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 폴리설펜류 플라스틱은 나일론 PP(폴리프로필렌) PBT(폴리부테렌테레프탈레이트)등 기존의 5대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비해 내열성, 기계적강도, 전기적특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아모코, 바스프, ICI등의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 이 플라스틱의 국내시장규모는 올해 약150억원 정도이나 자동차, 전자, 항공산업 발전에 따라 연평균 30%이상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일야상사, 토르크 조절나사 국내 생산

- 전자, 자동차, 항공기 등 각종 조립제품의 정밀성 및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고품위 토르크조절 볼트, 너트(나이록 볼트, 너트)가 국내에서도 본격 가공, 생산되기 시작했다.
- 플라스틱 원료 수출입 업체인 일야상사가 일본 니혼나이록사와 합작, 설립한 한국나이록(대표 이현의)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공장에 월간 2백만개의 토르크 조절 볼트, 너트의 가공, 생산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시장출하에 나섰다고 12월20일 밝혔다.
- 93년초 설립된 한국나이록은 일본측이 자본참여와 기술제공으로 33%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67%의 지분을 일야상사측이 확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 일반 나사류에 탄성기억 능력이 있는 고분자 플라스틱수지를 특수코팅처리해 생산하는 나이록 가공기술은 풀림의 완벽한 방지는 물론 풀림, 체결의 강도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 한국통신, 기내 공중전화서비스 제공

- 한국통신은 93년말 비행중인 여객기 승객이 기내 공중전화를 이용, 신용카드로 후불통화를 할 수 있는 항공위성전화서비스의 이용약관을 확정, 전화사용요금을 분당 7천4백40원(미화 9달러20센트)으로 정했다.
-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인말새트(국제해사위성기구)위성을 통해 지상과 연결되는 항공기지구국(AES)을 탑재한 B747 국제선여객기 1대에 공중전화기 4대를 설치, 이용안내문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1월중순부터 본격 운용하기로 했다.
- 대한항공이 약 30만달러에 도입한 항공기 지구국은 현재로는 전화 1회선만 제공하기 때문에 한 승객이 통화중일 때는 다른 전화기로 동시 통화할 수가 없다.
- 현재 AES를 설치한 여객기는 세계적으로 2백여대로 이중 60여대가 기내공중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여객기 상당수가 이미 기내전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이같은 항공위성통신서비스를 위해 한국통신은 항공통신용 육상지구국을 갖추고있는 영국-노르웨이-싱가폴등 3국 통신사업자간 국제연합체인 '스카이폰'과 중계협정을 체결했다.
- AES지구국을 갖춘 여객기내에서 우리나라로 전화를 걸면 비행경로에 따라 항공기→인말새트위성→외국(3국)육상지구국을 거쳐 기존의 국제통신망(인텔새트위성 또는 해저광케이블)을 통해 국내가입자와 접속된다.
- 한국통신은 우선 1단계로 외국의 중계에 의한 간접서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로 올해말까지 충남 금산에 자체육상지구국을 확보, 직접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 우창, 마그네슘합금 제조공장 95년4월 완공

- 우창이 마그네슘합금 제조공장을 건설한다. 동사는 정밀주조법인 로스트왁스법을 이용해 마그네슘합금 개발에 성공, 경기도 안성에 20억원을 투자해 95년4월 완공목표로 공장건설에 착수했다.
- 이 마그네슘 합금재질의 특징은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아 방송용 비디오키메라의 케이스나 항공기부품, 전자부품 등의 케이스와 자전거 이음쇠 등에 사용되고 있다.

● 항공회담소식 ●

■ 한-필리핀 항공회담

- 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지난12월7일부터 8일까지 교통부에서 양국간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협정을 개정, 운항회수 증편및 상호 이원권행사에 합의했다.
- 개정된 한-필리핀간 항공협정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1개항공사 운항에서 앞으로 양측에서 2개항공사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기 운항회수도 현재 주3회에서 주7회로 늘리기로 했다.
- 이에따라 그간 필리핀 노선취항이 제한돼 온 아시아나항공도 94년부터 정기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 개정 항공협정은 또 94년4월부터 한국은 필리핀을 경유, 동남아 2개도시로 주4회 운항할 수 있도록 했고 필리핀측은 한국을 경유 미국내 1개지점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간 노선구조도 조정하여 지방도시에서도 상호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중 항공실무회담 1월17일 북경서 개최

- 한국과 중국은 1월17~19일 북경에서 항공실무회담을 재개,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양국은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한 꾸준한 접촉을 통해 항공협정체결을 가로막아온 최대 쟁점인 관제이양 문제에 대해 이견을 크게 좁힌 상태로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올 상반기안으로 서울-북경간 직항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제이양점 설정과 관련, 양국은 중국측이 서울-북경노선에 한해 한국측의 주장대로 지난6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결정한 동경 1백24도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 두 나라는 그러나 서울-상해등 중국 남부 항공노선의 경우, 관제이양점을 현행대로 동경 1백25.2도를 유지, 서울-상해노선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전세기 취항을 계속토록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내 항공운송소식 ○

■ 교통부, 원주-제주 항공노선 추진

- 구본영 교통부차관은 지난12월13일 국회교체위에 출석, "원주-제주간 항공여객 수요가 연간 7만명에 달하고 기존비행장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신규 항공 노선 개설을 적극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구차관은 "현재 국내 양대 항공사도 모두 이 항공노선의 개설을 희망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원주공항 여객터미널건설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봄베이-카이로 취항

- 대한항공은 오는 1월10일부터 인도 봄베이와 이집트 카이로를 연결하는 신규노선을 개설해 주1회 취항선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1월7일 밝혔다.
- B 747기가 투입되는 이 항공편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55분 서울을 출발해 봄베이에 중간기착한 후 카이로에 화요일 오전 5시30분 도착한다.
- 이 노선의 개설로 서울-카이로간 항공편은 매주 수요일 서울을 출발하는 서울-바레인-제다-카이로간의 기존 항공편과 합쳐 주2회로 늘어나게 됐다.

■ 캄보디아항공 국내항공시장 본격 진출

- 캄보디아항공이 국내항공시장에 본격 진출, 1월7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 캄보디아항공은 상원인터라인을 한국총판대리점(GSA)으로 선정, 서울에서 홍콩이나 방콕까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승객을 수송한 후 중간기착지에서부터는 자사비행기를 투입, 한국인을 프놈펜까지 수송하고 있다.
- 캄보디아국제항공은 현재 B737기로 방콕~프놈펜간을 주7회, 홍콩~프놈펜간을 주3회 운항하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서울-홍콩 매일 운항

-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월12일부터 그동안 주5회 운항해온 서울-홍콩노선을 증편하여 매일 운항에 들어갔다.
- 이로써 아시아나는 서울-방콕에 이어 아시아권에서는 두번째로 매일운항노선을 갖게 됐는데 항공업계에서는 매일운항 노선이 영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 아시아나는 이번 증편을 계기로 홍콩노선이 연중 심한 좌석난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이 노선에 대형기종인 B747-400 및 B767-300기종을 번갈아 투입할 방침이다.
- 지난 한해동안 아시아나는 서울-홍콩 노선에서 모두 9만6천여명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평균 탑승률도 80.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아시아나항공, 서울-목포 운항 재개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추락사고로 중단했던 서울-목포간 정기여객기 운항을 1월16일부터 재개했다.
- 이 노선 여객기운항은 서울 출발편이 오전 9시40분, 오후 2시20분이며 목포출발편이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45분 등 매일 두차례씩이다.

■ 캐세이퍼시픽, 서울-홍콩간 항공편 늘리기로

- 캐세이퍼시픽항공의 서울-홍콩노선이 1월5일부터 주14회 왕복운항에서 주17회로 3회 늘어난다.
-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지난 12월18일 94년부터 1천3백석 규모가 증편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대만-홍콩노선중 만성적인 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대만 구간의 좌석난 해소차원에서 서울-홍콩 직항로를 예정보다 빨리 증편, 1월5일부터 대만을 경유해 홍콩까지 가는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이 노선에서 흡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캐세이퍼시픽의 의도는 대만을 거쳐 홍콩까지 가야하는 승객들을 일단 직항편으로 돌려 만성적인 좌석공급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대만구간의 좌석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항공업계는 이 경우 서울-대만구간의 좌석이 사실상 주당 3백여석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교통부와 노선증편을 협의중인 양대민항도 증편을 추진중이나 증편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 대한항공, 델타와 영업제휴 계약 체결

- 대한항공은 1월12일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미국 델타항공과 운항 스케줄 연계 및 상용고객 우대제도 상호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 이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미국내 미취항 도시로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자사 항공편과 델타의 국내선을 묶은 연계항공편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운항 스케줄을 갖추게 됐다.
- 양사는 또 상용고객 우대제도를 상호 인정, 고객들의 보너스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공항라운지 공동이용, 객실 및 운항승무원의 상호 연수, 예약 및 여행정보교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합의했다.
- 델타항공은 미국내 2백50여개 도시를 포함, 세계 3백여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 세계3위 규모의 대형 항공사이다.

■ 아시아나항공 취항5년 맞아 사업확대

- 아시아나항공이 12월23일로 취항 5돌을 맞았다.
- 지난 88년 복수민항시대를 열며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내선 11개 도시 16개 노선에, 국제선 7개국 17개 도시 20개 노선을 가진 항공사로 성장했다.
- 아시아나항공이 지금까지 실어나른 승객수는 국내선 1천7백50만여명과 국제선 3백30여명 등 모두 2천80만여명에 달한다.
- 동사는 93년말 현재 27대인 항공기를 96년에는 36대까지 늘리고 99년에는 40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방침이라고 중장기계획을 제시했다.

□ 무인자동예약 및 배달서비스 실시 □

- 아시아나항공은 1월1일부터 전화한통화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배달까지 해주는 「무인자동예약및 배달서비스」(ARS)를 실시한다.

□ 기내식사업 진출 □

-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스칸디나비아항공의 자회사로 기내식 전문업체인 SSP와 합작, 아시아나캐터링공장을 착공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키로 했다.
- 1단계로 10월부터 하루2천~3천식의 기내식을 생산, 자체수요를 충당하고 95년 하반기부터는 1일 1만식으로 늘려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 기내식 시장규모는 연간 600억원정도이다.

□ 화물운송 시작 □

- 현재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화물기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 96년에는 6대로 늘리기로 하고 99년까지는 21대로 늘려 현행 여객위주의 영업을 화물수송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영종도신공항 1단계 공사비중 20% 민자유치

-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 사업비의 순조로운 마련을 위해 당초 극히 제한됐던 민간자본 유치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교통부는 99년 개항 예정인 영종도 신국제공항 1단계 공사비 3조9천8백여억원 가운데 4.9%정도만 민자로 조달하려던 계획을 20%수준인 8천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키 위해 재원조달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교통부는 이와함께 당초 국고와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키로 돼있던 인천과 신공항을 잇는 연육교와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도로 건설비 8천8백억원중 일부도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정재석 교통부장관은 12월20일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94년과 97년에 각각 완공예정인 일본 간사이공항과 홍콩 첵랩콕공항에 동아시아 중추공항 기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민간자본을 더 투자해서라도 영종도 신공항의 개항시기를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 교통부는 당초 건설비를 사업주체인 한국공항공단이 47.3%(1조8천8백여억원), 국고에서 47.8%(1조9천여억원)를 조달하고 나머지 4.9%인 1천9백여억원만 민자로 충당, 화물터미널과 상업송달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나 공단 자체조달분과 국고가 99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돼 조기완공이 어려운데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활발한 민자유치 움직임에 발맞춰 공항시설 가운데 민간의 서비스 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7만9천평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민자로 건설키로 하고 건설비에 6천억원을 컨소시엄 형태의 3~4개 기업에 맡기기로 했다
- 교통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작업중인 "민자유치촉진법"에 투자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소유권과 시설사용권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IV. 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 미국, 초고성능 전투기 X-31 시험비행 성공

- 미 국방부는 1월11일 전투기동력이 종래의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5배이상 뛰어난 고성능 전투기를 제작하여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 캐더린 델라스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X-31기로 명명된 신형 전투기의 사진을 공개하고 비행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X-31기는 기존전투기의 수평공격 각도가 25~30도인데 비해 70도로 그 범위 내에 적기가 들어오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회전반경이 기존 전투기보다 월등하게 짧다 (7000m 상공에서 180도 회전하는데 필요한 회전반경은 보통 1000m이나 X-31기는 170m이면 가능)
- 미국과 독일의 합작으로 제작된 동 전투기는 미국이 1억8천만달러, 독일이 4천만달러를 투자했다.

■ 인텔, F-22전투기에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

- 세계 최대의 컴퓨터 칩 공급업체인 인텔은 최근 미 차세대 전투기 F-22용 i960MX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에 들어갔다.
- i960MX는 현재 미 록히드사와 보잉사가 공동개발 중인 F-22전투기의 두뇌격인 공통 통합 프로세서의 필수부품으로 Ada언어를 적용한 통제 및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 F-15와 같은 기존 전투기는 레이더, 대전자전 장비, 통신, 운항 및 피아식별기능을 제공하는 항공전자 부품들이 독립된 프로세서를 가지고있는 반면, F-22용 CIP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한다.
- F-22는 2개의 CIP를 장착할 예정으로, 각 CIP는 2대의 크레이 슈퍼컴퓨터 성과 동등한 처리력을 제공하게 된다.

■ 미국 휴즈항공, 98년까지 위성통신사업 진출

- 미국 휴즈항공사가 위성통신사업에 진출한다.
- 휴즈사는 오는 98년까지 6억6천만달러를 투자, 음성전화와 데이터통신 및 화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 '스페이스웨이'라고 불리는 휴즈의 위성통신시스템은 2기의 고주파 통신위성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1만1천5백회선의 양방향 비디오, 데이터, 음성통신서비스를 중계해 줄 수 있다.
- 가입자들은 직경 66센티미터 크기의 접시형 안테나를 이용, 휴즈의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휴즈는 동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위성관련 기술력을 이용, 궁극적으로 지상통신시스템 및 CATV시스템과 경쟁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위성통신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휴즈는 현재 CATV와 경쟁하기 위한 '다이렉트TV' 위성방송 사업계획을 수립, 지난해말 2기의 방송위성중 제1기를 발사했다.

■ 미국, 중국에 통신위성 3기 판매

- 미국은 1월7일 중국과 미사일기술 확산 방지 회담을 개최기로 했으며 중국에 대한 3개 통신위성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 린 데이비스 미국무부 안보담당차관은 1월28일부터 중국의 유화추 외교부부장과 미사일 확산에 관해 회담을 개최기로 하고 1월6일 미국산 통신위성 3개의 중국 판매를 허용했다.
- 미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협정을 어기고 중국이 파키스탄에 M11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93년8월부터 중국에 대한 통신위성 판매를 금지해왔다.
- 국무부는 위성판매 허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미사일통제협정 위반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 미정부는 그동안 업계로부터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는데 상무부는 중국에 판매할 통신 위성이 미사일 통제협정에 따른 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록히드사, 대만에 항공부품공장 설립

- F-16 전투기 제조업체인 록히드사는 아-태지역 고객들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만에 6억1천만달러를 들여 부품생산 및 정비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대만 경제부 차관이 1월2일 밝혔다.
- 대북에서 발행되는 차이나 타임즈지는 楊世緘 차관이 한 세미나에 참석, 록히드사의 “투자계획을 경제부가 12월29일 승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 양차관은 록히드사의 투자계획이 대만의 전투기구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성장하고 있는 대만의 항공산업과 아-태지역시장을 겨냥한 기지로서 이를 운영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은 94년12월 58억달러상당의 F-16전투기 1백50대를 사들이는 구매협정을 미국과 체결했으며 그 뒤에 록히드사는 거래액중 적어도 10%를 록히드사와 대만 정부간 10개년 산업협력계약에서 약속한 신용공여와 상쇄할 것을 제의했다.
- 이 협력계약에는 록히드사가 대만에 항공정비산업기금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기술이전과 항공부품 구입 및 공동생산, 요원훈련, 연구개발 및 시장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에어버스, 중국에 자회사 창설추진

- 에어버스사는 연간 30%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 새로운 자회사 창설을 추진중이라고 12월14일 발표했다.
- 에어버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현지의 판매 및 생산지원 활동 등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에어버스(중국)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로프 튀에씨가 이 회사의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에어버스는 또 북경에 훈련센터 및 부속품 비축시설 등을 설치해 중국내 항공사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상해소재 동방항공등 중국의 3개 항공사로부터 모두 18대의 항공기를 수주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 에어버스(중국)사를 이끌 튀에씨는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전제, 에어버스는 향후 수년동안 중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항공업계와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영-미 항공기엔진 제작사들 수주경쟁

- 미국과 영국의 주요 항공기엔진 제작사들은 항공기엔진분야에서 일본항공(JAL)에 제품을 팔기 위해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이 싸움에 뛰어난 항공기엔진 제작회사들은 미국의 프랫 앤드 휘트니(P&W)사, 제너럴 일렉트릭(GE)사와 영국의 롤스 로이스(RR)사이다.
- JAL은 금년 2월중 차세대 중형 여객기를 위한 엔진을 채택할 계획인데 일본 최대의 국제항공사인 JAL은 95년중 보잉사로부터 B777 여객기 2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항공기엔진 제작사로부터 대체용까지 포함, 총 5백억엔에 이르는 50대의 항공기엔진을 구입할 계획이다.
- 일본의 3대 항공사 가운데 전일공(ANA)과 저팬에어시스템(JAS)은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B777기를 위해 P&W사 엔진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롤스로이스-프랫 & 휘트니, 항공기 엔진부문 제휴 추진

-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경쟁사인 미국의 프랫&휘트니사가 세계 항공기엔진업체 사상 전후 최대 규모의 제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더 선데이 타임스지가 1월5일 보도했다
- 이 신문은 현재 최종단계의 마무리 협의를 진행중인 양사의 제휴협상은 오는 2천년대의 상용 항공기엔진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될 대형 민간항공기엔진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러나 이 신문은 롤스로이스사 회장과 프랫&휘트니사의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사 회장 모두 이같은 사실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 더 선데이 타임스지는 양사의 제휴협상은 세계 항공기엔진시장 석권을 위해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비용을 공유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차세대 항공기 수요 전망 등 발표

-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차세대 항공기검토위원회는 21세기초에 도입하기로 상정한 '초대형 여객기'와 '초음속 여객기'수요 등을 전망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 이 보고서에서는 6백~8백석급 초대형여객기 세계수요는 2천년부터 2010년 사이에 2백~4백대, 마하2 이상으로 비행하는 초음속 여객기는 2천년부터 2015년 사이에 4백~1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 위원회는 93년5월에 발족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이시가와지마하리마중공업 등 기체·엔진업체와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등 항공사들이 위원을 파견했고 통산성, 운수성 담당자도 옵서버로 참가해 12월까지 7차례 모임을 가졌다.
- 이 보고서는 초대형 여객기에 대해 일본 국내간선 외에 장거리 국제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체 사양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점과제로는 제조와 운항 비용을 줄이고 공항 유도료와 주기장 보수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체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음속기의 경우, 도쿄로부터 미국 동해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갖고 소음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초대형기는 이미 에어버스인더스트리가 6백석급 UHCA(초대용량 항공기) 구상을 밝혔으며 미국 보잉사도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얼 등 에어버스 구성 4개사와 공동으로 VLCT(초대형 상업용 수송기)사업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일-미-중-유럽, 차세대 단거리 제트기 YS-X 개발

- 일본의 통산성과 항공기 생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거리 소형제트기 YS-X 개발에 미국 보잉사 등 미·유럽 3사와 중국항공공업총공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2월28일 보도했다.
- 니혼게이자이는 이들 외국 4사가 최근 YS-X 사업에 참여할 뜻을 통산성에 전달해 왔으며 94년중 본격적인 항공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89년부터 YS-X 개발계획을 추진해온 일본은 이번에 미-일-유럽-중국에 의한 공동개발 체제가 갖춰짐으로써 21세기초까지는 새 항공기를 만들어 낼 것

으로 보인다.

- YS-X는 정원 70-80석의 차세대 제트기로 일본이 개발한 60인승 프로펠러 여객기 YS-11의 후계기인데 이 사업의 주체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이나 통산성은 지난 89년부터 매해 1억엔씩의 예산을 지원, 공동개발에 필요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 공동 개발에 참여할 외국 항공사는 보잉사와 중국항공공업총공사 이외에 스웨덴의 SAAB사,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회사인 ATR사 등이며 연구 개발비는 총 8백억엔(약 5천8백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 올해 안에 국영기업 36곳 민영화

- 브라질의 국가민영화계획위원회는 연내에 36개 국영기업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다. 대상기업 가운데는 외국기업, 투자가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항공기메이커인 엠브라엘 등이 포함됐다.
- 민영화가 결정된 36사를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메이커가 19사로 가장 많은데 지난해 경매대상기업에 포함됐으나 입찰조건 등을 둘러싼 마찰로 연기됐던 대형 유화메이커인 PQU와 전기메이커인 코르바사, 전력회사인 라이트사, 에셀사도 민영화된다.
- 이들 36개사중 32개사의 입찰실시일이 동시에 공표 되었는데 코브라가 제일 먼저 2월28일 경매되며 나머지 4개사는 입찰날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연내에 민영화될 예정이다.
- 브라질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지난 91년말의 제철회사인 우지미나스를 시발로 지금까지 24개사가 매각되어 매매금만도 모두 65억달러에 달하며 지난해엔 6개사(약 25억달러)가 매각됐다.

■ 대만-중국, 단거리 여객기 공동생산 가능

- 대만은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중국과 근거리용 여객기를 공동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만관리들이 밝혔다.
- 대만 경제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객기 생산부문의 협력및 본토시장개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행정원 산하 항공·우주산업개발위원회가 현재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이같은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6월까지의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관리들은 이와관련, 중국과 대만 양측이 항공기를 공동 생산하게 될 경우 민간차원의 합작사업이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전제면서 이를 담당할 민간회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한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대북에서 열린 중국-대만 세미나에서도 항공기 엔진생산과 정비공장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중국항공우주대학의 주 치언잉 교수는 1월10일부터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양측간 합작사업은 본토만해도 1천5백대규모의 여객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아-태지역 항공기 수요도 1천5백대에 이르는 만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보잉사와 항공기부품 합작생산 합의

- 중국과 보잉사는 96년부터 B-737기의 동체를 합작생산하기로 잠정 협정을 맺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 이번 협정은 중국과 보잉사간에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 보잉사측은 중국측 합작선이 이미 B-737기의 수직안정판과 수평미익을 생산하고 있는 서안항공공사가 될 것이며 동사는 이 두부분을 연결하는 동체부분을 생산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잉사는 B-757기 동체 합작 생산에 대한 정식협정을 94년에 체결, 96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은 지난 4개월동안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롤스로이스 엔진부품, B-757 CFM56-3엔진 및 기타 부품을 생산키로 계약을 맺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 중국 위성발사에 외국관광객 주선

- 94년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의 위성발사 장면을 구경할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진다고 중국계 신문 대공보가 12월21일 보도했다.
- 금년6월 여행사가 주선하는 단체관광인 이 패키지 투어에는 사천성 서창에 있는 중국우주센터 견학이 들어 있는데 이 우주센터에서는 새 세대의 「장정」 로켓 1기가 과학용 위성을 싣고 발사될 예정이다.
- 중국항공산업공사의 자체 여행사가 주선할 5일간의 이같은 관광은 출입이 제한돼 있는 우주센터 관광으로는 처음이며 관광단이 방문하는 일부 지점에는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고 대공보가 전했다.

■ 말레이시아, 독일과 해상정찰기 합작생산

- 말레이시아는 독일과 합작으로 독일제 14인승 해상정찰기를 생산키로 했다고 합작회사측이 12월7일 밝혔다
- 독일이 35%의 지분을 갖는 「도르니에 제아스타 말레이시아사」는 랑카위 인근의 폐항에 설립되며 초기 5년간은 독일인 기술자 40명이 파견돼 독일의 도르니에 제아스타 CD2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 CD2는 대당가격이 400만달러로 주로 해양정찰과 수색 및 구조작업에 사용되는데 회사측은 생산 비행기들이 2만8천개이상의 섬들이 있는 아-태지역에 매우 유용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 이 CD2는 말레이시아가 호주의 「이글 X-TS」, 스위스의 「MD3-160」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과 합작생산하는 것이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정찰기·헬기 34대 주문

- 말레이시아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누산타라 항공사에 정찰용 CN-235기 32대와 슈퍼푸마 헬리콥터 2대를 주문했다고 바하루딘 주수프 하비비에 인도네시아 연구기술장관이 12월21일 밝혔다.
- 하비비에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문을 최근 접수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군용기 생산에 시간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가 조속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CN-235기 3대를 1월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인도네시아도 최근 MD3-160 수송기 20대를 말레이시아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 하비비에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공쇼에 참석, 마하티르총리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군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1월중 항공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마하티르 총리는 B.J 하비드 인도네시아 과학기술부장관과 회담을 마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말레이시아는 우선 경비행기 개발에, 인도네시아는 이보다 큰 규모의 비행기 생산에 각각 역점을 두어 항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 93년에 6.2% 성장

- 싱가포르의 항공우주산업은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93년에 6.2%의 성장을 기록, 운송부문을 제외한 총 수입이 7억8천6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싱가포르 정부당국이 최근 전망했다.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우주항공산업이 아-태지역 관광붐에 힘입어 총 수입이 92년보다 6.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수리와 정비가 운송부문을 제외한 싱가포르 우주항공산업 수입의 9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부품생산 등이었다고 밝혔다.

● 해외 항공운송소식 ●

■ 미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 완화키로

- 미 행정부는 미국항공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페데리코 페냐 미 교통부 장관이 1월6일 밝혔다.
-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쌍무간 항공서비스 협정체제를 다자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페냐 장관은 이와 관련, 항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을 현재 각 회사 주식의 25%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 의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페냐 장관과 로라 타이슨 백악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같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적자로 도산위기에 처한 항공사들에게 자금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직방지와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제안은 그대신 다른 국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재 미국내 투자 확대가 가장 유력시되는 업체는 영국항공(BA)으로 BA는 지난해 US에어사에 3억달러를 투자, 19.9%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이며 전문가들은 투자한도 규제가 풀릴 경우 BA가 4억5천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 독일, 루프트한자 민영화 추진

- 마티아스 비스만 독일 교통장관은 12월13일 이번 의회회기중 국영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대한 민영화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비스만 장관은 이날 디 벨트지에 실린 회견기사에서 루프트한자 민영화를 위한 조건들이 매우 유리해졌다면서 민영화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국가 지분매각은 94년말로 예정된 연방총선 이후에나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과의 협정은 미국항공사들이 루프트한자를 희생시키면서 수익성이 높은 대서양 항로 시장에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현재 독일정부는 루프트한자 자본금중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미국 GTE에어폰, 신형 항공기전화 도입 예정

- 미국 GTE에어폰사는 신형항공기 전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이는 디지털방식의 전화로, 통화하는 상대가 타고 있는 비행기 편명이나 좌석번호를 몰라도 지상에서 비행중인 기내에 있는 상대방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를 보낼 수 있다.
-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항공기전화의 규제완화를 실시함에 따라, GTE 이외의 기업이 이 분야에 잇달아 참여하고있어 점유율 경쟁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다.
- 인 플라이트 폰사는 지상에서 항공기에 전화할 수 있고 라디오의 생중계나 주가, 여행지 가이드, 비디오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액정화면이 달린 디지털 전화를 투입했다.
- 한편 GTE는 94년 3월부터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US에어에 신형 전화를 납품하기 시작할 예정인데, 94년말까지 총 1천4백기 이상의 항공기에 탑재할 계획이다.

■ 중국, 성도공항 외국항공기에 개방

- 중국 남서부 사천성의 성도공항이 오는 12월28일부터 외국여객기의 이착륙을 허용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월21일 보도했다.
- 신화통신은 중국 항공관리들이 12월초 조사를 통해 성도공항의 통신 및 관제시설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이착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 중국은 최근 수년동안 여객기와 승객이 급증, 기반시설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 92년 사상 최악인 5건의 비행기추락사고를 겪은 중국은 93년에도 3건의 사고로 70여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상당부분 관제,통신 시설의 노후와 결함, 그리고 공항직원들의 훈련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대만, 중국과 직항로 개설준비

- 대만정부는 중국과의 직항에 대비, 6개의 직항 비행장 및 항구를 선정했다고 홍콩연합보가 1월6일 대북발로 보도했다.
- 대만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의 도시주택개발전처장은 경제건설위원회가 직항비행장으로 대만 최대국제공항인 대북의 중정국제공항과 고웅국제공항 및 대중의 청중강공항을, 직항항구로는 기육강, 고웅항, 대중항을 선정했다고 말하고 경제건설위원회가 새로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 북부 중부 남부에 각각 직항 비행장과 항구를 1개씩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본 간사이 공항, 사용료 비싸 큰 반발

- 일본에 취항하는 국제항공사들은 94년9월 개장 예정인 간사이(관서)국제공항의 비행장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공항측에 요금책정 재고를 촉구했다.
- 오사카(대판)의 인공섬에 1백억달러를 들여 건설되고 있는 간사이 공항은 B747-400기의 경우 한번 착륙할 때마다 1백4만엔(미화 약 9천3백70만달러)의 요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일본 나리타(성전)공항의 94만8천엔 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뉴욕의 존 F.케네디 공항의 사용료는 25만5천9백11엔, 런던 히드로 공항은 7만1천3백59엔이다.
- 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 취항하고 있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비행장 사용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외국 및 일본 항공사 60여개를 대표하는 일본 항공사대표위원회의 덩킨 프링 위원장(캐세이 퍼시픽 일본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항공사들이 비싼 이용료 때문에 간사이 공항을 피할 것임에 틀림없다” 면서 일부 항공사들은 이때문에 오사카 경유노선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간사이 국제공항사측은 간사이(관서)신공항이 부과기로 계획한 공항사용료는 공항의 최신 시설 등을 고려하면 비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말레이시아, 제2국제공항 건설비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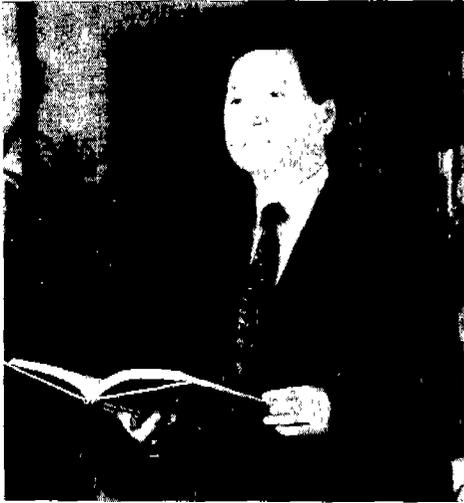
- 칼라룸푸르 남쪽의 세팡에 건설될 말레이시아 제2의 국제공항의 건설비는 당초 추산액 2백억링깃(80억달러)이 아닌 80억링깃(32억달러) 미만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부총리겸 재무장관이 말했다.
- 분석가들은 건설후 27년이된 칼라룸푸르 국제공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4년내에 완공될 새 공항의 부지로 배정된 1만ha의 땅은 대부분 토탄질이라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었다.
- 이브라힘 부총리는 베르나마 통신과의 회견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했으며 토탄질 땅을 피해서 도로가 건설될 것” 이라고 말하고 공사비가 낮아진 것은 예상보다 낮은 액수로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은 최근 이 공사를 위해 4천만파운드(5천9백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일본측과도 이 공사를 위한 차관교섭을 벌이고 있다.
- 새 공항 건설의 설계계약은 작년 12월 영국과 일본이 따냈는데, 당국자들은 부지공사에 약5억6천만링깃(2억2천4백만달러)이 투입됐다고 말하고 있다.

■ 인도 가루다항공, 여객기 58대 매각

- 인도네시아 국영 가루다 항공은 1월5일 80대의 소유 여객기중 59대를 금년중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 동사는 또 홍콩-자카르타 노선, 중동 노선처럼 수익성이 좋은 노선의 운항횟수를 증편하는 대신 자카르타-북경 노선과 같이 평균 탑승객수가 좌석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선들은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 이 항공사의 잔시우스 샤후안 대변인은 에어버스 B-4기(9대)는 대당 1천6백만달러, 포커 F-28기(33대)는 대당 5백만달러, DC-9기(17대)는 대당 4백50만달러에 각각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고 59대중 절반 가량은 가루다 항공의 자매사인 메르파티 누산타라 항공에 매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V. 회원사 소개

■ 삼선공업주식회사



□ 회사개요 □

- 삼선공업주식회사(대표 김울태)는 1945년 시흥공업사로 창업하여 현재 매출액 530억원, 종업원 600명의 규모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 삼선공업주식회사는 45년 창업이래 67년 현재의 삼선공업(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 받은후 75년에는 알루미늄 합금 압출소재업체로 지정 받았다.

- 동사는 72년 KS표시허가를 받은 후 73년 구로공장, 79년 반월공장, 80년 창원공장을 준공하고 88년에는 삼선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 87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조합을 대한항공, 한국화이바와 공동설립하여 창공91 다목적경항공기 개발에 참가하였다.

□ 주요설비 □

- 주요 설비로는 용해로, 주조기, 균일로와 압출설비인 5,000t 직·간접 압출기와 2대의 직접압출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열처리설비, 교정설비, 가공설비, 피막설비 및 시험설비등 알루미늄 소재의 압출설비와 시험설비를 완비하고있다

□ 주요사업 □

- 주요생산품목으로는 고력알루미늄(창원공장), 알루미늄휠 및 주물품(반월공장), 알루미늄샷시(구로공장) 등이며 항공기용 압출형재를 개발하여 창공91 제작에 사용하였다.

VI. 참고자료

■ 93년 4/4분기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확인 실적

<총괄>

(단위 : US천불, 천원)

구분		분기	전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추천	민수		223	276,684	53	91,652	276	368,336
	방산		121	272,106	207	440,343	328	712,449
관세감면확인	민수		79	194,186	24	73,102	103	267,288
	방산		-	-	-	-	-	-
계			423	742,976	284	605,097	707	1,348,073

* 방산물자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확인 업무는 '93.7.1부터 수행
 ** 방산물자 관세감면확인은 수입추천시 병행하므로 해당란 기재 생략

<국가별 수입추천 실적>

(단위 : US천불)

국가		구분	전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민수	미국		154	10,020	30	64,126	189	74,146
	영국		15	453	1	24	16	477
	일본		14	10,596	5	142	19	10,738
	프랑스		30	255,497	7	23,120	37	278,617
	기타		10	118	5	4,240	15	4,358
방산	미국		117	270,917	203	438,739	320	709,656
	영국		2	1,138	3	1,603	5	2,741
	일본		2	51	1	1	3	52
계			344	548,790	255	531,995	604	1,080,785

<업체별 수입추천 실적>

(단위 : US천불, 천원)

업체	분기	전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민수	대한항공	54	242,596	12	60,995	66	303,591
	삼성항공	16	13,114	4	23,206	20	36,320
	서울항공	9	136	2	26	11	162
	KAIST	11	394	-	-	11	394
	한국항공	10	148	-	-	10	148
	항공대학	6	118	1	74	7	192
	한 벨	11	135	1	6	12	141
	현대정공	13	10,621	4	136	17	10,757
	기 타	93	9,422	29	7,209	122	16,631
	소 계	223	276,684	53	91,652	276	368,336
방산	금성정밀	4	7,670	7	16,401	11	24,071
	금 호	1	194	-	-	1	194
	대 우	17	27,428	12	346	29	27,774
	대한항공	15	526	74	393,096	89	393,622
	삼성항공	48	235,809	67	3,442	115	239,251
	오리엔탈	3	26	1	54	4	80
	한국리톤	1	98	-	-	1	98
	한 벨	32	355	36	433	68	788
	현대정공	-	-	1	1,533	1	1,533
	화 이 바	-	-	1	489	1	489
	종합기계	-	-	3	14,501	3	14,501
	기아기공	-	-	3	8,160	3	8,160
	대영전자	-	-	1	727	1	727
	기 타	-	-	1	1,163	1	1,161
소 계	121	272,106	207	440,637	328	712,449	
계	344	548,790	262	531,995	604	1,080,785	

<품목별 수입추천 실적>

(단위 : US천불)

품목	구분	전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완 제 기		13	261,830	3	87,208	16	349,038
	고정익	7	242,828	1	278,486	8	302,714
	회전익	2	18,928	2	27,322	4	46,250
	활공기	1	28	-	-	1	28
	기 타	3	46	-	-	3	46
부 분 품		148	13,567	41	2,041	189	15,608
	기 체	58	11,346	6	306	64	11,652
	엔 진	28	782	13	371	41	1,153
	전 자	18	505	5	55	23	560
	장 비	42	859	16	1,305	58	2,164
	기 타	2	75	1	4	3	79
조종훈련설비		10	151	2	4	12	155
	완성품	-	-	-	-	-	-
	부분품	10	151	2	4	12	155
우 주 기 기		11	394	-	-	11	394
	발사체	-	-	-	-	-	-
	위성체	11	394	-	-	11	394
	기 타	-	-	-	-	-	-
중 고 품		-	-	1	2,300	1	2,300
	완제기	-	-	1	2,300	1	2,300
	부분품	-	-	-	-	-	-
	기 타	-	-	-	-	-	-
기 타		41	742	6	99	47	841
계		223	276,684	53	91,652	276	368,336

* 방산부분은 방위산업용 원료, 기재이므로 전량 부분품임(생략)

<용도별 수입추천 실적>

(단위 : US천불)

용도		구분	전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민수	유지보수		137	2,437	37	1,917	174	4,354
	조립생산		7	10,583	1	84	8	10,667
	연구개발		28	1,170	4	37	32	1,207
	운송사업		3	254,953	2	82,989	5	337,942
	교육훈련		-	-	-	-	-	-
	자가/업무		3	6,673	1	2,300	4	8,973
	레저스포츠		2	28	-	-	2	28
	공공목적		2	39	1	4,218	3	4,257
	기 타		41	801	7	107	48	908
방산	유지보수		87	2,017	183	2,232	190	4,249
	연구개발		20	1,903	27	3,059	47	4,962
	양 산		13	268,174	64	431,682	77	699,856
	기 타		12	12	2	3,370	14	3,382
계			355	548,790	329	531,995	604	1,080,785

<사업별 수입추천 실적>

(단위 : US천불)

사업		구분	전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 F P			6	267,365	22	67,461	28	334,826
UH-60			7	652	54	366,335	61	366,987
KTX-1			18	1,787	14	2,173	32	3,960
정비	헬기기체		21	297	19	515	40	812
	헬기보기		22	254	32	408	54	662
	엔진		43	1,368	52	1,309	95	2,677
기 타			4	383	14	2,142	18	2,525
계			121	272,106	207	440,343	328	712,449

항공우주산업동향

통권 제12호 등록번호 라-6124 1994년 1월호 (매월1회발행)

발행인 : 이 대 원
편집인 : 박 병 구
인쇄인 : 김 해 등
발행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 획 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6 대지빌딩
TEL : 553 5681/2 FAX : 553 5683

(비매품)